

## 말씀으로 (신명기 8:1-10)

오늘 말씀은 '말씀으로'이다. 예배는 일단 가장 먼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이때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많이 받게 된다. 그리고 치유를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드리는 것은 참 귀한 것이다. 헌신 없이 은혜 받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이 말씀을 받는 것이다. 깊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평생 잡고 가야 할 말씀을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 바란다.

### 1. 말씀으로

오늘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만나에게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다. 인간이면 떡으로 살아야 하는데,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만나를 주셨다고 하였다. 그래서 진짜 말씀이면 되는가? 그말 아닌가?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다. 진짜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냐는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강조한다. 강단 메시지, 훈련 메시지 많이 강조한다. 말씀을 따라가라, 잡아라 얼마나 강조를 많이 하는가? 정말로 말씀이면 되는가 이것 아닌가?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본문의 핵심은 떡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이다. 일단 우리가 이해가 안된다. 떡이지 어떻게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정말 떡이 아니고 말씀인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도전이다. 답 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옛날에는 대부분 말씀이라고 하면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다.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아주 성공한 예배였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그 정도로 은혜 받는 것이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심각하다. 대부분의 경우, 예배에 참석해도 은혜롭게 예사로 듣는다. 하나님은 그런게 아니고 심각한 것이다. 왜 떡으로 사냐,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것이 3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말씀을 예사로 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사로 한다. 때로는 간단하게 뒤집어 버린다. 하나님은 절대 이말 했다 저말했다 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는 한마디의 말씀이 참 심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셨다. 너무나 잘 아는 말이라서 은혜가 잘 안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 생각해 보면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주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태양, 달 뿐 아니라 인간도 내가 다 만들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모든 결론이 내게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가 심각해야 되는데 별로 안 심각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고 하였다. 죽은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이 일어나라 말하니 일어나었다. 그리고 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왔다. 백부장 이야기이다. 우리 기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기적을 주시라고 늘 이야기 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 해야 한다. 세 번째로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시대적인 인생을 산 모든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다. 대단한 것을 받은게 아니라 말씀을 받았더니 능력이 따라왔다. 모세같은 인물은 쉽지 않다. 대 역사 일어났는데, 물론 창세전의 계획이었을 것이다.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었는가 하면 모세에게 말씀이 임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었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인물이 쉽지 않다. 교회사만 바꾼 것이 아니다. 세계 역사를 바꾸었다. 그런데 그의 참된 인생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받은 그 순간부터 달라졌다. 류목사님도 어느날 렘넌트 들어왔다. 그 때부터 렘넌트 운동 일어나고 다음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

것과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할 힘이 그 말씀에서 다 나온다는 것이다. 신학교 졸업할때에도 내가 왜 목사를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목사가 많은데. 그때 나는 복음운동만 하겠다고 결심했다. 결심이 아니라 말씀이 온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기적의 인생을 산다. 전부터 시대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우리도 말씀 받아야 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신다. 하나님은 뭐 일하는데 재료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 재료 필요 없다. 우리는 재료가 더 중요해도. 하나님은 말씀이 재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3절에 만나를 주신 이유를 말했다. 우리 같으면 보통 하늘에서 만나 내려왔다고 너무 좋다고 할렐루야 할 것 아닌가? 맞다. 그런데 그걸 넘어섰다. 니가 사는 것은 이 만나가 아니라 내 말씀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다. 왜 그런가? 그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16:4에 그 때에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릴 것을 약속하셨다. 만나가 그냥 스스로 온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렸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요약해서 노골적으로 말하면 니가 말씀이 있냐? 그러면 니 먹을 것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 말이다. 만나처럼 내려올 것이다. 지금 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다. 니가 살 것은 떡이 아니라 만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으로 안 사는 것, 내 기도의 핵심이 말씀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것 회개해야 한다. 당연히 말씀따라가야 하고 말씀을 받아야 한다. 혹시 나는 받을 사람이 아니야, 시대적인 인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부터 생각 바꾸라. 나도 내 평생을 두고 살아갈 말씀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 나도 주세요.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이 평생의 말씀을 두고 우리가 매주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말씀 받고 강단 통해 받고 기도하다가 평생의 말씀도 받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쏟고 나도 이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것이 근본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사실은 영적으로 영원한 관계가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속에서 기다리는 데 우리가 그 말씀과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말씀 따라가면 전쟁도 이긴다. 우리 기도온 이야기 잘 안다.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 시키는데로 하니까 미디안 다 이겼다. 히스기야 왕 너무 유명하다. 18만 5천명 하루 밤에 다 죽었다. 이런 것은 세계 역사에도 없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다. 우상 숭배 절대 안했다. 이런 저런 우상 다 깨라고 하니까 온 나라 다니면서 다 깬다. 산에다가 예루살렘 가기 힘들니까 높은 산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곤 했었다. 그것을 묵인을 했었다. 왜냐면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예루살렘 가기도 힘들었기 때문이다. 히스기야는 그것까지 다 깨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오직 한곳, 성전 외에는 하나님 만날 길이 없다. 이스라엘의 종교를 개혁했던 왕들이 몇 명 있는데, 그들은 산당은 안 깬다.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던것들 다 깨버렸다. 우리 아이성 잘 안다. 실수했다가 다시 정복했다. 여호수아 8:2에 보면 너희는 성뒤에 복병하라하고 하였다. 하나님이 지적하셨다. 그 뒤에 가서 숨어 있어라. 따라 했는데 반드시 이겼다. 언약궤를 따라갔더니 요단강 갈라졌다. 아무것도 안했는데, 여리고성 무너져버렸다. 언약궤 중요하지만 언약궤 자체가 아니고 언약궤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너진 것이다. 지난 주 우리 가나안 땅을 가면 된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는 가나안 땅 가면 된다고 하더니 오늘 말씀 따라가라네? 이렇게 생각할수 있다. 왜 가나안 땅 가면 모든 저주 문제가 무너지는가? 하나님이 가라했기 때문이다.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다. 민수기 14:39-45에 보면 참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다. 민수기 14장

은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잘못된 보고를 해서 백성이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결정했다. 20세 이상은 다 죽을때까지 40년간 광야에 있어야 해. 이것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달했을 것이다. 전달하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너무나 슬픈 일이라고 자기들이 지금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서 회개하면서 산 위에 올라갔다. 그때 모세가 이야기 했다. 그러지 마라. 지금 가면 안된다. 하나님이 함께 안한다. 그때 모세가 말하기를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냐고 하였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거라고 했다. 왜냐면 말씀이 바뀌었다. 그때는 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것이다. 말씀이 바뀌었다. 그래도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슬프고 양심이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올라간 것이다. 모세가 이야기했다. 올라가면 분명 죽는다고 했다. 가지 말라 했다. 그래서 과연 아말렉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었다. 이유가 무엇인가? 가나안 가라는 말씀은 끝났다. 그런데 가면 되겠나?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야. 이 해는 간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슬펐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야되겠다 얼마나 마음이 기특한가?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안가. 그래서 다 죽었다. 그 심정은 너무나 귀하지만 그 감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끝까지 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냉정하게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기도 많이 하고 정말 해야 되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냉정하게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부활메세지 네 개 딱 선택해야 한다. 237, 치유, 서밋, 딱 선택해야 한다. 예레미야 21: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데아 인에게 가서 항복하면 살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당히 갈등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와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건진 백성을 악한놈들에게 가서 항복하고 무릎 꿇으라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이다. 그때 이런 사람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항복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핏대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죽을 뻔했다. 이게 완전히 돌은 놈이지 왜 바벨론 편을 드냐는 것이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24:5-10절에 보면 내가 포로로 잡혀 간 사람은 내가 포도나무처럼 보호할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칼과 전염병에 죽을것이라고 하였다.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예레미야는 너희가 우상을 끊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북쪽의 군인들로부터 구해줄것이라고 계속 이야기 했다. 왕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다 우상숭배하는 것이다. 이제는 끝났다. 우상 끊고 돌아오면 살려준다는 말씀이 끝났다. 이제는 나가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주제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운운하며 남아 있는 인간은 다 죽는다는 것이다. 옛날에 우리가 너희가 가서 텃밭가꾸고 아이도 낳고 결혼하고 잘 살아라. 그 성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살라는 말씀을 전에도 봤었다. 기준은 말씀이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인가? 떡이 아니다. 말씀이다. 그런데 이게 말씀이 아니고 떡이면 종교인 것이다. 이것 바뀌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기 말씀에 대해 양보가 없다. 믿는 자는 구원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유없이 저주에 들어간다. 절대 양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말씀에 양보가 없는 대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시키신다. 내가 만일 성경의 말씀을 믿는다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내가 만일 이 시대를 두고 말씀을 받았다면 반드시 성취된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라. 말씀 말씀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한 말씀을 성취 시켜 준다 그러면 우린 된 것이다. 다르게 더 이상 필요 없다. 말씀만 잡으면 된다. 그래서 이 시대는 믿으면 구원 주겠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유효하다. 너무나 감사하다. 우리 열쳐녀 비유 안다. 미련한 다섯처녀가 나중에 왔다. 예수님 보고 문 열어달라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나 쌀쌀한 소리를 한다. 나는 너희는 도무지 모른다. 닫힌 문은 절대 안 열린다. 이 말씀이 끝났다. 믿으면 구원 받는 다는 말씀이 그 때 끝이 났다. 그래서

문 닫고 더 이상 구원 없다. 그 때 가서 잔인하니 어쩌니 그건 말이 안된다. 그래서 평생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한다.

## 2. 내가 잡은 말씀

흔히 하는 말로 개인언약이다. 평생 언약이고 평생 내 기도제목이다. 이 언약이 렘넌트 7명을 비롯해서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에게 전부 다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있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도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받은 복음은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하다.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복음 누리고 전하는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주신다. 그게 내가 평생을 두고 잡아야 할 말씀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주 말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매주 받는 말씀은 내가 받는 평생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중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과정이다. 결국 세계복음화 237로 가는 것이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잡은 모든 말씀의 최종 기착지가 237이다. 1절에도 이야기 했는데 너희는 내가 말한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가 번성할 것이다. 우리가 번성하는 것은 너무 간단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하면 된다. 율법에 말씀하신대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그리고 니 인생의 방향은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2절에는 40년간 이 광야를 걷게 한 이유는 이 율법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되는가? 역사 일어난다. 어떻게 지키는가? 내용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어떻게 지키는가? 그걸 딱 요약했다. 그것이 그리스도 이다. 조금 더 풀어서 지난주에 정리를 했다. 그게 무엇인가? 십계명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리고 방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다.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깊이 아는 것이다. 바르게 아는 것이다. 이것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다. 여기에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간단하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못살도록 사단이 자꾸 생각을 뒤집는다. 그래서 속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고 전쟁해야 한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말씀을 성취해준다. 그래서 내가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나도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야한다. 모세처럼 내 인생의 말씀을 주세요. 우리 기도할수 있고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것은 그 사람이나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거지 나는 아니다? 그건 틀렸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주세요. 그리하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깊은 기도는 말씀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깊은 기도가 깊은 치유를 일어나게 한다. 깊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때문에 사단의 역사를 깊이 막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깊은 기도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니가 떡으로 사는데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니가 내가 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올 것이다. 그 때는 만나처럼 눈에 보이게 내려왔지만 지금은 눈에 안 보이게 더 많이 내려온다. 확실한가? 이게 답이다. 딱 언약으로 잡기 바란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라. 상황 다 필요 없다. 여기에서 니가 만일 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지키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올거야. 니가 배부르게 먹을 것이고 네 인생의 기적이 연속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이 응답을 받고 땅 끝까지 가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